

조안에게 손톱을 박아 넣었다

언니, 얼마 안 돼서 발바닥을 뚫고 손톱이 자라날 거야.

손톱을 바짝 깎으며 조안이 말했다. 조안은 매일 아침 여섯 시에 설정해 둔 알람이 세 번 울리기 전에 일어나 손톱을 깎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안나는 밤사이 잔뜩 부은 얼굴을 두드리며 의아해했다. 조안은 기이할 정도로 짧은 손톱에 집착했다. 늘 손톱과 손톱 아래의 여린 부분이 조금도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했다. 손톱깎이를 있는 대로 집어넣어 자르다 피를 보는 일이 허다했지만 고치지 않았다. 고칠 생각도 없었다. 그렇기에 조안이 손을 짹 펴면 늘 손톱 위로 손끝의 둥근 살이 봉긋하게 올라와 있었다. 삼 일에 한 번 정도는 아무리 손톱 밑을 헤집어도 자를 게 없어 손톱깎이가 빼끗하곤 했다. 그럼에도 조안은 늘 손톱을 잘랐다. 한 번은 안나가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손톱을 짧게 자르냐고. 조안이 답했다. 언니를 소화할 수 없어서. 안나는 무언가 따지려 입술을 깨물었다가 이내 턱에 힘을 풀었다. 그래, 네가 멀쩡하게 대답할 리가.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조안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안나는 출근하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었다. 정갈하게 와이셔츠를 다려 입고, 드라이하는 대신 머리를 질끈 묶은 채였다.

들어 봐. 내가 어찌다 손톱을 먹었거든. 꿀꺽. 손톱 조각이 몸을 통과하다가 발바닥에 걸리게 확실해. 점점 자라고 있다니까.

나 잠도 안 잤어. 또 뭘 개소리야.

최근 들어 방바닥에 손톱이 굴러다녀서 자꾸만 밟힌댔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손톱이 발바닥 가죽을 뚫고 나오느라 자꾸 따끔거리는 거지.

웃기지 마. 니 손톱이 굴러다니는 거지.

아니라니까. 생각을 해 봐. 나는 매일 손톱을 잘라서 잘려 나가는 게 종잇장처럼 얇아. 그거 좀 밟는다고 아플 리가 없어.

야, 헛소리할 거면 거울에다 대고 해.

조안은 잘린 손톱을 손으로 쓸어서 종이 위에 모았다. 종이를 이리저리 접어 손톱과 함께 버리며 말했다.

헛소리 아니야. 중요한 건 정말 내 발바닥에서 손톱이 자란다는 거야.

안나는 더 응해 주지 않았고, 조안도 구태여 더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입을 꼭 다물고 안나를 바라보았다. 화장을 마친 안나는 출근하려 잠깐 몸을 일으켰다가, 무언가 생각났는지 다시 앉았다. 조안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 깎이 좀 줘. 조안은 순순히 손톱깎이를 내밀었다. 낯아채듯이 받아든 안나는 손톱 아래로 날을 집어넣었지만, 우습게도 안나의 손톱은 짧고 정갈했다. 뭐지. 무언가 잘못된 게 확실했지만, 벌써 7시가 다 되었고, 안나는 출근해야 했다. 손톱깎이를 화장대에 올려놓은 안나는 조안에게 짧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

안나는 동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다. 왼쪽 입꼬리가 경련했다. 일을 시작한 지 일 년쯤 지난 무렵부터 생긴 증상이었다. 그럴 때마다 안나는 입을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친절이 향하는 건 오직 민원인들뿐이었기에, 아무도 안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쌀쌀맞음이 감사하면서도 늘 독이 됐다. 잡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경련이 멈췄다. 안나는 고개를 들었다. 옆에 앉은 직원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타이핑하고 있었다.

언니, 곧 내 손톱이 발바닥을 뚫을 어찌구. 조안이 뭐라 했더라. 흘러들은 탓에 정확히 문장으로 구사할 수도 없는 말이 이명처럼 맴돌았다. 안나는 조안과 얼굴을 가까이 할 때마다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개는 늘 그랬다. 쓸데없고 무가치한 말만 지껄이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에 선수였다. 아닌가. 그게 핏줄이라는 건가. 안나는 조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도 늘 곱씹게 되는 이유를 몰랐다. 내 얼굴을 하고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만 해대서 그런가. 개는 늘 생각 없이 말을 뱉어서 기분 나빠. 이것 봐. 결국 나만 스트레스받는다니까. 나는 말 한마디 할때도 옳은 말을 골라내야 하는데 개는 스트레스도 없을걸. 자기 전에 생각 정리할 필요도 없을걸. 그냥 헛소리를 입 밖으로 내놓고 나면 끝이니까. 언니, 내 손톱 발톱이 제정신이 아닌 나를 닮아서 미쳐가는데 그게 참 길게도 뻗어나가는데, 어찌면 언니에게가 닿을 수도 있고, 언니, 듣고 있어? 안나는 조안의 말을 곱씹다가 깨달았다.

손톱 때문이다.

언젠가 안나에게 민원을 건 사람이 있었다. 무슨 하나 있는 젊은 여자 직원 손톱 밑에 때가 잔뜩 끼 있어요? 더러워 죽겠네. 6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이마 정중앙에 커다란 사마귀가 있었고, 여름이면 가끔 어린 손주를 데리고 시원한 동사무소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가는 사람이었고, 사람이 적어 눈에 띄는 것 같으면 괜히 대기 인원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번호표를 뽑아 자신이 여기에 왔음을 전광판에 남기는 게 취미였으며, 할 말도 없으면서 꾸역꾸역 앉아서 한다는 말이 늘 헛소리였기에 직원들은 모두 아는 고객이었다.

그날은 별로 덥지도 않은 날이었다. 동사무소를 찾은 그 사람은 대기 인원이 5명이나 된다는 것부터 불만을 가졌다. 그 사람이 기다린 시간은 십 분 남짓 되었는데, 본인 번호가 화면에 뜨자마자 쿵쿵거리며 다가와 안나 앞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냐는 안나의 질문에 한참을 노려보기만 하던 그 사람이 입을 뗐다. 아들이,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안나가 말했다. 아드님에게 문제가 있나요? 안나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 사람은 소리를 질렀다. 아니, 무슨 여자 직원 손톱이 그리 더러워요? 안나는 그 사람의 말을 어절 단위로 끊어서 곱씹어 보고는 네? 하고 되물었다. 손톱. 손톱 아래

긴 때 좀 보라고. 안나는 급하게 손톱을 내려다보았다. 근래 바빠서 깎지 못한 손톱이 손끝을 살짝 넘을 만큼 자라 있었다. 그 아래에 먼지가 살짝 끼어 있었다. 안나는 물티슈를 꺼내 손을 급하게 닦고는 멧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안나를 뜯어보며 불만을 토로했다. 팀장이 나왔다. 팀장은 접수 창고 안쪽에 딸린 탕비실로 안나를 밀어 넣었다. 밖에서 팀장의 말소리가 들렸다. 안나는 터질 것처럼 뛰는 심장계를 부여잡으며 문에 귀를 가져다댔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 팀장은 탕비실로 들어왔다.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고객들 보기가 안 좋다잖아. 앞으로는 손 깨끗하게 유지해요. 안나는 그날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슬렉스를 입었다. 잠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손톱 아래에 때가 켜를 뿐,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질끈 묶어 올렸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하고 따지고 싶지만, 스스로 보기에든 손톱 밑이 까맣다. 안나는 이를 꼭 깨물었다.

혀를 확 빼물 수 없어서 대신 이를 물었다.

그 후로 안나는 불안하면 손톱을 이로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다.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올까 봐 테이블 아래로 고개를 푹 숙이고 손톱을 깨물었다. 오래 물고 있으면 손톱이 침에 녹는 건지 약간 흐물흐물해졌다. 약해지는 걸지도 몰랐다. 오래오래 물고 있었다. 형태를 잃고 뒤로 꺾이거나, 아주 녹아 없어져 버리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모든 딱딱한 것들은 그만큼 쉽게 녹을 수 있다는 걸까. 그렇다면 자신 또한 잘 녹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안나가 중얼거렸다. 그 사이 팀장은 옆 도시로 전근 갔지만 여전히 손톱이 흐물거렸다.

그러나 안나는 여전히 작은 접수 창구에 앉아 있었다. 오늘도 웃어야지. 사람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

조안은 식탁에 앉아 안나가 매일 출근하러 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안나가 나간 후에도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뻘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조안이 생각하는 완벽한 때가 되면, 어떤 향이라 정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샴푸로 머리를 감고, 꼼꼼히 말렸다. 소파에 드러누워 조금 쉬다가 시간에 맞추어 점심을 먹고 나면 한 시가 조금 넘었다. 한 시 이십 분이 되면 노트북을 열었다.

喵喵的裙子质量好。快买吧！

마오마오의 치마는 품질이 좋아요. 어서 사시다!

살던 지역의 관광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때 배운 중국어를 활용해 조안은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반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건 조안의 선택이었지만, 안나의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안나는 자신과 똑같이 생겼으면서 하는 짓은 판판인 조안을 늘 멀리

했다. 오히려 일관성 쌍둥이기에 더 미워했을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원서를 넣을 때가 되자, 안나는 조안이 다른 학교를 가기를 은근히 바랐다. 조안은 안나가 식탁 위에 슬그머니 올려 둔 관광 고등학교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가만히 읽었고, 그 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공부했던 조안은 공부도 곧잘 했지만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안나가 울었기 때문에. 조안이 안나보다 수능 성적이 훨씬 좋게 나와서, 울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조안은 따돌림당했는데, 이 일의 배후에도 안나가 있었다. 일주일 동안 잔반을 적게 남긴다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 주겠다고 담임 선생님이 약속한 적이 있다. 안나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된다고 했다. 조안은 그 모습을 묵묵히 보았다.

3일째 되던 날 작은 포도 송이가 나왔다. 안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포도 씨와 껍질을 모두 삼켰다. 괜히 씹었다간 포도 씨의 잔해가 입 안에 남아 있을 것 같았다. 물경한 동시에 딱딱한 무언가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게 그대로 느껴져서 불쾌했던 안나는 웅 하고 토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조안은 그런 안나를 달래며 밥을 남김없이 먹었다. 그리고 급식 판에 덩그러니 남아 있던 줄기를 입에 넣었다. 너 뭐 하는 거야! 안나가 경악하며 말했다. 조안은 묵묵히 우물거리며 포도 줄기를 씹었다. 잘못 데친 나물을 씹으면 이런 식감일 것 같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수군거렸다. 재 이상한 거 먹는데! 거친 줄기가 조안의 입 여기저기를 활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개의치 않고 씹었다. 조안은 안나의 표정을 살폈다. 안나는 사색이 되어 조안의 옷을 잡고 흔들었다. 당장 울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침에 녹아 무른 줄기 조각이 이 사이에 끼어 간질거렸다. 빼 보려 했지만 손가락 끝의 감각이 무더 잘 잡히지 않았다. 뺄 수 없다면 간지러운 곳을 손으로 긁을 수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입이 작아 손이 들어가지 않았다. 혀로 더듬고 통겨내며 겨우 밀어냈을 때쯤엔 이미 삼킬 수 있을 만큼 흐물흐물해졌다. 별 탈 없이 삼켰다.

다음날 등교하니 또래 아이들이 그게 쌍둥이 중 누구였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조안은 늘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았기에, 안나일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그날 도망치듯이 하교한 안나는 조안을 붙들고 씩씩거리며 말했다.

넌 왜 그런 걸 먹어? 애들이 내가 그런 줄 알잖아.

언니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잖아. 그리고..... 선생님도 잔반 남기지 말라 그랬고.

그렇다고 누가 포도 줄기를 먹냐고. 그 정도는 안 먹어도 돼. 너 바보야?

그렇게 못 먹을 것도 아니던걸.

안나는 소리라도 꺾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치 외계인과 대화하는 기분. 안나는 어린이용 안전 가위를 가져와 조안의 머리를 잘랐다. 단발머리로 자르면 나와 헛갈리지 않겠지. 안나의 가위질은 매우 서툴렀고, 날카롭지 않은 가위는 잘 들지 않았다. 울퉁불퉁한 머리를 다듬으니 계속해서 기장이 짧아졌다. 퇴근하고 돌아와 상태를 확인한 엄마가 조안을 미용실에 데려가긴 했지만, 불임머리를 할 수도 없을 만큼 길이가 짧아 선택할 수 있는 머리 스타

일의 폭이 좁았다. 그대로 학교에 간 조안은 남자에 같다며 놀림 당했다. 안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해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그 누구도 조안과 안나를 헛갈리지 않았다. 이제 재는 나를 흉내 낼 수 없어. 조안은 어째서 안나가 평소보다 친절한지 알 수 없었다. 짓궂게 장난을 치거나 괴롭히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그닥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것들보다 안나가 자신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 후로도 안나는 가끔 조안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를 요구했고, 조안은 이를 들어 주었다. 조안이 고립될수록 둘의 사이가 좋아졌다. 한동안 다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안은 늘 이해하지 못했다. 머리가 조금 크고 나서는 왜 어릴 적과 반대로 평범하라고 강조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들이 보기에 특이한 말을 하면 안나가 싫어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었고, 그렇기에 말을 뱉기보다는 삼키는 것을 선택했다.

어차피 조안은 안나가 아니면 대화할 상대가 몇 되지 않았다.

안나는 조안을 해피하게 만들고, 조안은 들어주고, 조안의 곁에는 안나밖에 없으면 안나는 기뻐하고, 그래서 더 안나를 끌어안았고, 안나는 들어주고, 조안을 더 해피하게 만들고, 조안은 들어 주고, 기뻐하고, 안고, 들어주고, 계속 곁에 있고.

평범한 사고가 어려운 조안이 어째서 몇 년째 번역 일을 맡아서 하는지 안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찌 되었든 조안은 꽤나 유능했고, 꾸준히 일이 들어왔다. 요새는 케이팝 팬이라 한국 진출을 꿈꾸는 어느 왕홍의 영상에 한국어 번역 자막을 달았다. 한 시 이십 분부터 여섯 시 사십 분까지 편집된 영상을 돌려 보며 번역했다. 여섯 시 오십 분이 되면 퇴근하고 돌아온 안나와 저녁을 먹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일과를 보냈다.

这是一个尝试韩式妆容的视频。

我想强调我对韩国有很好的感情。

请直接翻译就可以了，谢谢你！

이것은 한국식 메이크업을 시도해 보는 영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번역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안은 영상과 함께 도착한 메일을 읽었다. 그 사람의 요청 사항은 늘 비슷했다. 한국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것을 드러내되 직역할 것. 조안이 무언가를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좋다고 말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다. 애초에 싫은 것은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영상은 늘 밝고 낙관적이었다.

好。好了。很好！漂亮。非常好！

좋아요. 잘 됐네요. 좋습니다! 예쁘네요. 아주 좋아요!

조안은 늘 좋다고 적으면서, 왜 그렇게 거북한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아주 쉽고 편한 일이었는데도.

번역을 마친 영상을 그 사람에게 전송한 조안은 어제 먹다 남은 찌개를 데웠다. 안나는 돌아오자마자 외투를 벗고 소파에 누워 밥상이 차려지기를 기다렸다. 안나는 종종 밥을 거르고 잤고, 가끔은 조안을 도와 저녁을 차렸다. 조안은 안나가 뭘 하든 이해해 보려 시도하고, 안나는 당연하게도 조안이 그럴 것이라 믿었다. 그것의 자매의 암묵적인 룰이었다. 왜냐하면 늘 그랬으니까. 조안은 안나가 좋으면 그거로 됐다고 여겼다.

안나가 얼마 안 남은 두부를 건져 먹으며 물었다.

맞다, 병원은 가 봤어?

응.

진작 가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가?

병원에 가려면 하루 루틴을 완전히 틀어야 해. 매일 처리해야 하는 할당된 일이 있는데 그걸 깨고 병원까지 가려면 최소한 삼 일 전부터.....

그래서 병원에선 뭐래?

몰라.

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 너 제대로 말 안 했지?

아냐, 말했어.

뭐라 그랬는데.

언니가 와 보랬다 그랬어. 내가 매일 헛소리만 한다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언니가 그렇다네요. 언니가 나한테 나쁘라고 그러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해 물었어. 아, 상담하기 전엔 웬 검사지도 했어. 내원한 사람들은 다 하는 거래. 내 일상과 기분을 묻는 질문들이 많던데.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지. 낮엔 번역하고, 밤엔 언니와 지내요. 딱히 우울하진 않아요.

안나는 왜 심사가 뒤틀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괜히 젓가락으로 식탁을 툭툭 치다가, 조안과의 대화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뭐래?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물 많이 마시래. 한숨도 두어 번 쉬었던 것 같아.

그럴 만도 하지.

안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반찬을 우걱우걱 쭉서 넣다가 이내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너 병 있는 거 확실해. 병원 계속 다녀.

조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나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조안은 그 일을 떠올렸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둘은 꽤 크게 사고를 쳤다. 자매는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 학교에서 몰래 챙겨온 돋보기로 빛을 모아 마른 나뭇잎을 태우며 즐거워했다. 정확하게는 안나가 신기해했고, 조안은 안나가 좋다 하니 동참했다. 하필 여름날이었고, 햇볕이 너무 뜨거웠으며, 안나는 호기심이 많았고, 조안은 가만히 버티는 것을 잘했다. 불이 났다. 한순간에 나뭇잎에 불이 붙었다. 안나는 소리 지르며 도망쳤다. 안나가 잡고 있던 나뭇잎이 베란다 바닥에 팔랑이며 떨어졌다. 조안은 울먹거리는 안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옆에 있던 화분을 불길 위로 옮겼다. 금세 불이 잦아들었다. 흙 위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일을 마치고 집에 늦게 돌아온 부모님은 바닥에 엎어져 있는 화분을 보고 자매를 불러 질책했다. 누가 그런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안나는 울먹거렸다. 조안이 그랬어요. 안나는 조안의 손을 짓눌렀다. 조안은 안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휴, 그러지 좀 마라. 안나 없으면 어쩔 뻔했니. 엄마는 더 잔소리 하지 않았고, 아빠는 이리저리 흩어진 흙을 쓰레받기로 한데 모아 치웠다. 조안은 부모님이 모두 자리 들어갈 때까지 안나만 바라보았다. 묵묵히. 묵묵하게. 묵묵하게도. 안나는 애써 시선을 회피하다가 목소리 낮추어 말했다.

아, 좀. 저것 봐. 부모님도 안 혼내잖아? 하지만 내가 그랬으면 달랠을걸. 무서운 목소리로 화내고 엉덩이도 때렸을걸. 그러니까 너 혼자 했다고 해 줘. 넌 그런 애잖아. 나를 위해 그럴 수 있잖아.

조안은 이내 안나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바닥에 시선을 쫓고 고개를 두어 번 끄덕였다. 안나는 조안의 귀에 속삭였다. 누가 봤어도 상관없어. 우리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 우린 혼나지 않을 거야.

조안의 손등에는 작은 손톱 자국이 남았다. 아무리 어린애라도 간절함이 모이면 꽤 큰 힘을 만든다. 깊게 흉터가 생기진 않았다. 조안은 오래도록 그 상처를 매만지곤 했다. 아주 사라지고 나서도.

*

조안은 수월하게 문장을 써 내려갔다. 누군가가 아는 사람을 관찰하고 작성한 에세이였다. 그를 지칭할 때 남성형 3인칭 단수 인칭대명사를 사용했으므로 관찰 대상이 남성이라는 점은 알 수 있었으나, 그 외에 모든 정보는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였다. 서술자 본인에 대한 정보마저도. 모든 것을 숨긴 채로 남을 서술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건 조안도 마찬가지였으므로 오히려 편했다. 가감 없이 보이는 대로만 읊기면 되니까.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어찌 됐든 서술자와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인 그는 주변 평판이 좋았다. 서술자는 그와 직접 대

화를 나누는 일은 적었지만 멀리서 지켜보며 글로 옮겨 적었다.

他总是很在意体面。

조안은 잠시 멈췄다. 가끔 해석하기 곤란한 문장이 나오는 게 번역의 매력이었다. 어쩌면 당연한 것. 언어라는 게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사전 그대로 옮기면 안 되지. 그러면 누군가의 삶이 어그러졌다. 조안은 번역이란 늘 문장이 아닌 누군가를 해석하는 일이라 여겼다. 그 형태가 무엇이든 결론적으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내포한다고. 그럼에도 영원히 해석되지 않는 문장들은 존재했다. 특히나 중국어는 독립성이 강한 언어라 더욱이 그랬다. 한자 그대로 나열해도 해석이 된다는 점에서 편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힘이 강해서 그 농도를 맞추는 것 또한 번역가의 일이었다.

그는 늘 체면을 의식했다.

직역하자면 그랬다. 다만 계속 씹기엔 너무 딱딱한 문장이었다. 이런 문장은 말하기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다. 그는 매일 좋은 옷을 입고 고상하게 말했다. 그는 딱딱한 사람이었다. 그는 속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남에게 좋게 보이길 원했다. 해석하기에 따라 독자들에게겐 아예 다른 인물로 보여질 것이다. 조안은 고민했다. 그를 판단하기에는 이제껏 나온 정보가 너무 적었다.

곤란하다.

조안은 그가 되는 상상을 했다. 나였으면 어땠을까. 나랑 너무 다른 인물이라 전체 자체가 잘못된 걸까. 내가 체면을 차린다는 건 어떤 이유지. 언니 때문이겠지. 언니가 원했겠지. 모든 것은 다 안나로부터. 그렇다는 건 그도 나와 같은 언니가 있다는 뜻인지. 음, 곤란해.

조안은

그는 늘 남에게 좋게 보이길 원했다.

라고 적었다가

남에게 좋은 얼굴만 보이길 원했다.

로 고쳐 적었다. 이내 주관을 짝 지우고 무난한 문장을 적었다.

그는 항상 체면을 중요시했다.

무난한. 무난한 게 이래서 살아남는구나. 조안이 생각했다.

原本一切都正常，但他笑得有点不对劲。

원래는 모든 게 다 정상이었다. 다만 그는 조금 이상하게 웃었다.

조안은 타자를 멈추고 오래오래 그 문장을 읽었다. 원래, 정상, 이상하게, 웃다. 이상한 문장이었다. 차라리 有点不对劲(이상하다) 대신 怪怪的(이상야릇하다)가 들어왔다면, 조금 더 서술자의 감정이 실렸다면 번역에 용이했을 텐데. 이상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안은 알 수 없었다. 웃는 게 이상하다는 건 웃음 소리를 뜻하는 걸까. 아니면 어색하

게 웃었다는 걸까. 어쩌면 유머 코드가 독특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웃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는 걸까? 그는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웃는 방법조차 헛갈렸던 걸까. 무슨 표정을 지어야 좋아 보일지 몰라서. 조안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상하다는 건 어떠한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그냥 이상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웃었길래, 웃으며 무엇을 했길래 서술자에게 있어 이상하게 보였는가. 아닌가. 내가 그런 사람이기에 구태여 정의를 내리는 것인가.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이고 이상해 보이기에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뿐인데. 조안에겐 텍스트 외의 것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었다. 그저 그의 인생에 대해 추측할 뿐이었다.

아. 조안은 어딘가 익숙한 패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의 번역이 삶을 요약해서는 안 된다. 조안은 생각을 그만뒀다. 주어진 문장을 다른 언어로 옮기면 그만인 일에 자신을 대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히 편한 말을 적었다.

조안은 앞으로 목적을 알기 어려운 에세이 일을 받지 않을 것이라 결심했다.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는 건 늘 폭력적이니까. 실험 보고서나 교재처럼 확실한 목적을 가진 일만 받아야지. 조안은 작성을 마치고 허리를 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여섯 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안나가 올 것이다.

*

두 시나 됐다. 조안이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47분째. 보고 있다. 안나가 손톱을 자른다. 손톱이 잘려 나가고 나서도 손톱깎이를 밀어넣는다. 헤집어 대느라 오른손 엄지와 왼손 약지에선 피가 흐른다. 조안은 안나가 깨 버릴까 봐 더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살짝 열린 방문 사이로 안나를 바라본다. 언니, 지금 뭐 하고 있어? 조안이 생각한다. 언니, 지금 무슨 생각 들어? 조안은 생각한다. 안나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손톱깎이를 휘두른다. 툭. 툭. 툭. 툭. 더 자를 게 없을 때까지 딱딱. 자를 게 없어 허공을 짚는 손톱깎이와 꺾꺾 눌러대는 안나. 조안은 본다. 그냥 본다. 그저 본다. 잠잠히. 본다. 안나를.

피가 떨어진다. 손톱깎이 사이에 붉은 살덩어리가 끼어 있다. 안나는 보지 못한다. 툭, 툭, 툭. 손톱이 붉게 물든다.

안나는 모른다.

안나가 손톱깎이를 두 번째 서랍에 넣는다. 침대로 돌아간다. 곧 코고는 소리가 들려온다. 조안은 본다. 슬며시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안나의 손톱. 조안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간다. 조안은 손으로 바닥을 쓸며 손톱을 모은다. 꼭 달 같네. 그믐달. 초승달이 아닌 그믐달이어야 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상을 덧댄 것. 손톱을 조심하

모아 손 위에 얹었다. 조안은 안나를 응시하며 손톱을 입에 털어 넣었다. 식감이 꽤나 기이해 인상을 쓴다. 날카로운 손톱 조각이 조안의 혀바닥을 핥킨다. 찰흙을 씹으면 이런 맛이 날 듯하다. 언니가 나를 가려주듯 언니를 안아 줄 수 있는 것도 나야, 잊었나 봐. 모래와 고운 흙이 녹아 입천장에 진득하게 들러붙는 감각. 살덩이도 조금 잘라 넣으면 덩어리지려나. 피와 함께 주물주물 뭉치면 나와 안나. 안나와 나. 안나와 조안. 조안과 안나. 어쩌면 동의어. 기왕이면 웃는 얼굴로 만들어야지. 오독오독. 녹진하게. 이내 녹는다. 꾸울럭.

손바닥에 몇 개 남은 조각은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에 버렸다.

언니를 품에 안고 싶어.

조안은 기분 좋게 잠에 들었다. 좋은 꿈을 꿀 것 같았으나 따로 꿈은 꾸지 않았다.

*

我要访问韩国。拜托您实时翻译。

한국에 방문할 거예요. 실시간 통역을 부탁해요.

我没有做过翻译。

저는 통역을 해 본 적이 없어요.

应该没什么难的。拍摄的时候，只要跟着像采访这样的帮一下就行了。不会有什么大事的。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촬영할 때 같이 다니면서 인터뷰 같은 것만 좀 도와주면 돼요. 조안이 크게 할 일은 없을 거예요.

好像有点儿困难。我跟姐姐住在一起，不能晚回家。

어려울 것 같네요. 언니랑 같이 살아서 늦게 귀가하면 안 돼요.

回家不会太晚的。

그다지 귀가가 늦지 않을 거예요.

조안은 그 사람의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아주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마음이 상한 그 사람이 앞으로 일을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면 아주 곤란해졌다.

고민 끝에 조안은 해 보겠다고 메일을 보냈다.

그 사람은 삼 일 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다. 하루는 청담동 샵에 방문해 메이크업을 받는 콘텐츠를, 나머지 이들은 자유 여행 하며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일정이었기에 조안은 첫날만 그 사람과 함께했다. 그 사람은 처음 만난 조안을 친근하게 대했다. 일 년 가까이 함께 일을 하며 메일을 주고받아서인지 처음 만난 사이라고 보지 않는 듯했다. 조안은 밝은 그 사람한테서 기묘함을 느꼈다. 눈에 띄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영상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을 풍겼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 조안은 이

것저것 말을 고르다가 그저 안녕하세요, 하고 건조하게 인사만 건넸다.

그 사람은 조안의 입을 통해 대화했다. 저는 중국의 크리에이터입니다. 한국을 좋아해요.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상호명을 밝히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안쪽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다. 조안은 그 사람과 매니저 사이에 어정쩡하게 서서 입을 빌려줄 뿐이었다.

请按照最近流行的风格化妆。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메이크업해 주세요.

有参考吗? 比如 喜欢什么样的艺人。

레퍼런스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가.

嗯, 比起那样的, 还是给我化普通的韩国女生喜欢的妆吧。要 自然的。

음, 그런 것보단 평범한 한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 해 주세요.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를 어떻게 통역하지. 조안은 이런 류의 어휘가 딱딱하다고 느꼈다. 정말 자연스럽다는 것은 태초의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건 화장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고민에 빠져 허공을 바라보는 조안의 어깨를 그 사람이 살짝 건드렸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해 달라고 하네요. 편하게 해 달래요.

조안은 자기 검열을 마친 말만 뱉었다. 대화에는 문제가 없게 삭제해가며 통역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문장으로 바뀌서. 샵 내부는 추웠음에도 땀방울이 흘렀다. 조안의 말은 자꾸만 짧아졌다. 그 사람은 의문스러워하는 듯했으나 채근하지는 않았다.

촬영은 무난하게 진행됐다. 조안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해 본 적이 없었다. 통역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조안은 기계적으로 말을 전하면서 안나의 말을 떠올렸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해. 네가 문제야.

그 사람과 조안 사이에도, 매니저와 조안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물 흐르듯이 말이 전달됐다. 나는 누군가를 대신할 때만 멀쩡한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그럼 내가 늘 안나를 대변한다고 생각할 순 없을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평소엔 왜 어려운지. 아니, 정확히는 조안이 말을 뱉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조안은 직관적으로 느낀 것을 언어로 복사해내는 것뿐인데도.

메이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조안이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괜찮나요? 마음에 드나요? 정도만 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되었다. 조안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꼈고, 동시에 불쾌했다. 시끄러운 샵 내에는 부정적인 무언가는 없었다. 기묘하다. 조안은 눈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 사람을, 직원들을, 화장품을 살폈다. 모두 다 일그러진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 소리가 과잉되게 느껴지거나 아예 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예쁘네요! 좋네요! 하고 말하지만

왜인지 평소랑은 다른 음으로 들렸고, 조안은 좋다고 말하면서도 무표정해졌다.

외부 세계는 시끄러웠고 내면의 언어는 더 시끄러웠다.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게 많다. 문자는 문자 그대로 문자였는데 실제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따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언어, 뉘앙스, 말투, 심지어 그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 유추해야 했다. 해석할 여지가 너무 많았다. 그건 대화보단 혼잣말에 가깝지 않나. 혼자 읽고, 혼자 쓰고, 혼자 말하고, 혼자 해석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은 어쩌서 대화가 아니며 언니는 나를 답답해하는 걸까. 전달되는 모든 말이 의심스럽거나 잘못된 문장 내지는 비문처럼 느껴지며 조안의 통역은 자꾸만 짧아졌고, 안나를 끊임없이 떠올렸다. 번역이나 통역, 남과의 대화는 모두 어떠한 무언가를 거쳐서 말해야 하는데 안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매니까. 안을 수 있는 존재니까.

안나와 좁은 방에 앉아서 신경전을 할 때만 유일하게 발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

들었어? 그 할머니 기초 생활 수급자래.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매번 지원 신청하러 와서 괜히 성질이나 내고 돌아가는 거였어. 지난달부터 선정됐다던데. 사람들 적은 시간에 몰래 와서 소득 재산 조사 받고 갔다더라. 누구한테 받았더라?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안나는 동료들을 힐끔거리며 얼굴을 찡그렸다. 민원인들 저기 앉아 있는 게 안 보이나. 목소리 좀 줄이지. 이내 관심을 거두고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40대 아줌마들에게 유일한 낙이겠거니 했다.

안나는 거울을 이용해 목 뒤편을 비추려 노력했다. 손가락으로 목을 쓸면 분명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리 방향을 바꿔 보아도 거울 하나로는 목 뒤를 비출 수 없었다. 안나는 거울로 보는 것을 포기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새빨간. 무언가 붉은 듯하기도 하고 물린 것 같기도 한 흉터가 하나 있었다. 수상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수상하게 볼 수 있는 별절게 부은 자국. 머리가 아팠다. 질끈 묶은 머리를 풀었다. 긴 머리를 아래로 내렸다. 지저분한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보일 것 같아. 앞으로 내렸다. 안나는 한참 동안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자국을 쓰다듬었다. 손길이 닿아 더 따끔거렸다. 아니, 손가락이 욕신거렸다. 안나는 손을 들어다 보았다. 손톱 밑에 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어디 부딪힌 기억은 없는데. 해괴했다. 자다가 떨어지기라도 했나. 그러면 잠에서 깬을 텐데. 내가 그렇게까지 둔하진 않은데. 만약 그랬다면 내가 침대 아래에서 일어났겠지. 분명 침대 위였다고. 아, 끔찍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데에서 오는 끔찍함.

손톱이 언제부터 자라지 않았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내 몸에 붙어 있는 타인의 불순물이라는 불쾌한 기분이었다.

안나는 남자가 건넨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조했다. 서류 문제 없으니까 처리해 드릴게요, 했다. 40대 언저리로 보이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곤 동사무소를 나갔다. 특이하네. 대체로 눈이 붉어져 있던데. 다만 안나는 그저 직원. 구태여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았다. 이 작은 마을은 계속 늙어갔고, 출생 신고보단 사망 신고가 잦았다. 안나의 책상 한편에는 며칠간 접수된 사망 신고서 더미가 쌓여 있었다. 슬슬 시스템 입력을 할 때가 됐다. 일이 밀리면 가장 먼저 미뤄두는 게 사망 신고 처리였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금하게 구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나는 서류들을 정렬했다. 서류 접수는 제때 처리했으니, 남은 일은 간단했다. 주민등록 말소,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입력, 주민등록 말소, 사망 입력, 말소, 사망, 말소, 사망. 말소. 사망. 결국 말소. 언제부터 사망이라는 말에 무감해졌더라. 언제부터 사망과 처리가 붙어도 아무렇지 않았더라. 사망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됐더라. 어찌다 아무렇지 않게 입력하게 됐더라. 이 할아버지 사망 신고하러 온 여자는 접수 내내 울었지. 나는 그저 처리했어요, 라고 말했던가? 그건 어찌면 직업병이고 고령화가 누구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마을에서 너무 당연한 일인가. 그럼에도 확신할 수는 없었다.

몸 어딘가에 머리카락이 찰싹 붙은 기분이 들었다.

민원인이 없으면 안나는 미뤄둔 서류 작업을 했다. 단순 작업일수록 생각이 많아져서 더 미루게 되었다.

안나는 늘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았다. 어깨에 짐을 얹어두고 출가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인가. 아냐, 그건 인정될 수 없어. 부모님을 미워하다니. 평생 일만 하셨으니 말년에라도 행복하세요. 아직 말년이라 부르긴 어렵지만 그냥 쉬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과장한 것.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운 걸까. 나 자신? 별것도 아닌 일로 또. 무라시. 무라시 하면 다 사라져. 조안의 말은 이상한 타이밍에 가끔 가물거리는 이상한 재주를 가졌다.

네다섯 살 쯤 먹었으려나.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기억나지 않아도 어쨌든 부모님께 혼나서 울고 있던 것만은 확실하다. 그럴 때마다 늘 곁을 지키는 건 조안이였다. 무라시 하면 눈물이 사라져. 울지 마, 언니. 무라시 해 봐, 무라시. 무라시는 주문. 언니가 행복해지라는 주문. 무라시 하면 사라져? 응, 사라져. 무라시, 무라시, 무라시. 엄마 미워. 미워도 돼. 기분 좋아질 거야. 무라시 무라시 무라시. 그 주문을 안나는 꽤 오래 사용했다.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안나는 그 주문이 아주 유치한 비밀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후로 조안이 무라시를 입에 올릴 때면 화를 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 나까지 이상하게 보잖아.

모든 것의 시작은 조안. 평범하려면 평범하지 못한 모자란 놈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모순. 둘 다 멸정하지 못하려면 나라도 우뚝 서야지. 지독하게 모순. 미칠 것 같다. 좀 무탈할 수 없을까. 그게 어려운 거야? 조안은 부모님은 안 따라도 안나는 따랐다. 안나가 이상한 말을 하지 말라면 그냥 말을 안 했다. 그게 조안의 방식이었겠거니 넘기려 해도 용서가 안 됐다. 어떻게 실행도 포기도 쉽게 하지. 그렇게 꼭 참다가 안나와 둘만 있을 때면 얼어죽을 헛소리를 다시금 꺼냈다. 남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아도 결국 티가 나니까 남들이 다 알게 되더라도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미친 시스템. 조안을 내가 떠맡은 건 조안이 내 쌍둥이 동생이기 때문이고 난 고작 3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며 그럼에도 난 이 작은 모니터 앞에서 서류 정리를 해야 하고 집에 처박혀서 타자나 두드릴 동생의 평생을 책임져야 돼. 그게 나의 평범함이야.

부모님이 보기에 그저 좀 엉뚱한 애. 그런 애가 내 뒤에 태어난 탓. 그럼에도 내가 장녀인 탓. 내가 공무원이 된 탓. 그럼에도 언니라는 이름으로 모두 짊어진 탓. 조안이 나랑 같은 얼굴을 한 탓. 그래도 동생은 동생인 탓. 내 동생. 끌어안아야 돼.

저기요. 누군가 테이블을 조용히 두드린다. 안나는 그제야 민원인이 다가왔다는 것을 눈치 채고 고개를 든다. 어휴, 표정 좀 펴요. 무서워서 어디 말 꺼내겠어요?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무표정으로 너무 집중하길래. 이 말을 마지막으로 민원인은 말을 더 없지 않았다. 안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렀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내 앞에서 서성거린 것이며, 내 표정은 언제부터 굳어졌고, 얼마나 딱딱했던 것인가. 조안을 생각했다면 필히 험악했을 것. 무표정이라는 말도 결국 돌려서 한 말일 텐데. 내일쯤 나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려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안나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표정 짓는 방법이 기억 안 나. 집에 가면 아침마다 손톱을 깎아대는 염병할 동생이 있을 거고, 제일 먼저 손톱깎이부터 숨겨야지.

안나가 현관을 열자, 콩나물국 냄새가 났다. 조안은 늘 그렇듯 무심하게 현관까지 나와 안나를 반겼다.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그저 응시하는 것. 그것이 조안의 방식이었다. 채는 늘 무슨 생각 하는지 감도 안 와. 저건 웃는 표정일까, 우는 표정일까, 아니면 아무 표정도 안 한 표정일까. 미간에 힘이 들어갔다. 어디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쾌감. 조안은 안나가 될 수 없고, 안나는 조안이 되어선 안 된다. 다름이 증명되어야만 하는데 분명히 뭔가 다르지만 여전히 무엇이 다른지 밝히지 못했고, 그것은 무언가 역겨운 것을 반증하며, 조안은 안나의 얼굴을 하고 안나와 물리적으로 동일하며 이것이 끔찍한 폭력처럼 느껴졌다. 내 얼굴로 그런 느낌 주지 마. 안나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 다른 말을 했다.

너 이제 밖에 나가지 마.

그건 무슨 말이야.

외출 금지라고.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밖에서 좇같은 말이나 하고 다닌 건 아냐? 나랑 똑같은 얼굴로 손톱이 발바닥에서 자란다느니 그따위 소리나 하고 다닌 건 아니냐고.

안나는 편의점에서 조안이 이상한 말 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유니콘의 뿔을 파나요. 혹은 무라시는데요. 꿈 구름은요? 혹시 그걸 아시나요. 저희 자매의 발바닥에선 손톱이 자란답니다. 미친 것 같지만 미치진 않았고요, 매우 정상적이에요. 물론 그런 적 없을 거라 여기지만 아주 없을 법한 일도 아니었다.

그런 적 없어. 나 밖에 잘 나가지도 않잖아.

그럼 왜 나더러 표정이 무섭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니라잖아.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아니, 맞을걸. 넌 늘 머저리 같은 짓만 해대고 대체로 내 추측이 맞았어. 너 기억 안 나?

언니는 내 말을 끝이 들으려 하지 않아. 이상하다는 건 누가 만드는 거야? 언니가 만드는 건 아니야?

씹버리지 같은 새끼. 너 같은 새끼랑 태어날 바에 그냥 뱃속에서 확 뱉어버렸어야 하는데. 그딴 걸 질문하는 것부터가 제정신은 아닌 거야. 평범한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언니가 자꾸 그러니까 이상한 곳에 자리 잡잖아. 언니가 내 말 들어 줬으면 안 그랬을걸. 우리도 다른 자매들처럼 지냈을걸. 언니는 못 느꼈어? 요새 너무 방바닥에 손톱이 굴러다니지 않아? 언니는 모르지만 난 알아. 언니가 모르는 걸 나는 안다고. 언니는 내가 언니를 지킨다는 걸 알아야 해. 거울 볼 때마다 가끔 언니가 보여. 언니는 그거 모르지?

진짜 뭐라는 거야. 미쳐도 곱게 미쳐.

순서가 다 꼬였어. 언니가 제일 바라는 것 같아, 내가 병이 있기를. 모든 게 다 병 때문이라고 탓해 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개소리도 정도껏 해.

언니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 내가 그렇다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일 줄을 몰라.

안나는 씹씹거렸다. 조안은 호흡이 조금 떨렸다.

손톱은 진짜 자랄 거야. 언니를 소화하지 못해서 자라는 거니까. 오로지 내 것이 되지 못해서.

너 정신 이상자야. 너만 몰라, 그거. 계속 혼자 벽 보고 헛소리해라.

안나가 투명스럽게 말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조안은 안나의 침실을 두드렸다.

저녁 안 먹어?

어, 너나 처먹어.

그래.

조안은 상을 차리고 여섯 시 오십 분에 첫 술을 떴다. 아주 오래 오래 씹었다.

저녁상을 치우고 조안은 안나의 방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조안도 동의를 받지 않고 방에 들어갔다.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설명해. 화내기만 하면 난 모르잖아.

말했잖아. 나가지 말라고.

왜 그래야 되는데?

싫어? 그럼 넌 집에 있어. 내가 나갈 거야.

아니, 알겠어. 안 나갈게. 그러면 언니가 화 안 내는 거지?

안나는 왜 조안에게 화가 나는지 늘 정확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었다. 조안은 안나와 닮았고, 닮았으면서 좇 같고, 그럼에도 가족이고. 그럼에도라는 말이 너무 무거웠다.

너는 그게 쉽니? 시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넌 늘 그런 식이야. 왜, 내가 죽자면 죽게?

언니가 나가지 말라며.

그러니까 내가 시키면 다 하냐고.

언니가 화나는 게 싫으니까.

안나는 이마를 부여잡았다. 조안은 몇 번이고 이제 됐냐고 확인한 후 쉬라며 방문을 닫고 나갔다.

안나와 조안은 일란성 중에서도 유독 닮았는데, 그래서 안나는 사진 찍는 것조차 싫어했다. 나중에 누군지 헷갈리면 어떡할 건데. 그게 나든 조안이든 엄마든 타인이든 중요하지 않았다. 안나도 가끔 조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난가 싶었다. 그리고 나면 안나는 화가 나 몰래 울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도, 시키는 대로 순응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왜 조안은 쉽게 해대는가. 나를 흥내 내기나 하는 짝퉁이면서 내가 살지 못하는 이면을 보여 주는 조안. 뭐든 쉬운 조안. 자꾸 탈선을 해대는 조안. 그럼에도 확실하게 조안과 자신을 구별할 정체성이 없다는 사실이 암담했다. 그렇다는 건 나는 조안인가. 결국 조안과 같은 조안과 안나, 안나와 조안. 무엇이 먼저 와야 하는지.

그래서 안나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늘 그랬다.

*

작업을 마친 조안은 노트북을 끈다.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다. 익숙하고도 섬뜩하다. 언니는 지금 뭘 하지?

조안은 가끔 생각한다. 실은 안나와 자신이 하나의 태아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둘로 분리된 것은 아닌지. 너무 다른 두 부분이 섞이지 못해 분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골몰한다. 일리가 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닮았지만 아주 닮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안에게 보이는 안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조안은 안나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화를 내는 순간에 조금 서운했을지는 몰라도 아주 싫지만은 않았다. 유일하게 조안이 조안답고 안나가 안나다운 모습을 보이는 때가 분노하는 순간이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은 자기 혐오 내지는 자기애. 끈적하게 붙어서 분리될 수 없는 두 감정. 무언가 까끌까끌한 게 입안을 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혀를 이리저리 굴리던 조안은 이 사이에 끼어 있던 손톱 조각을 꺼낸다. 그믐달. 아니, 초승달?크게 해가 되진 않지만 거슬리는 것. 깊은 곳에 머무르며 빠지지 않기도 하다. 고작 이 크기면서! 안나의 손톱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조안은 고개를 숙여 떨어진 것을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

뒤집어 놓으면 구분할 수도 없으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을 나열했다. 이미지적인 유사성과 닮았기에 닿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하늘에 동시에 떠 있을 수 없는 달들과 한 공간에서 서로를 완전히 마주 보는 일이 없음에 대하여. 결국은 하나에서 태어났으면서.

분리돼서 존재할 수 없으면서도 존재함으로써 서로를 정상이 아니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아. 자세를 바꾸던 조안이 얇게 신음했다. 아까 떨어진 손톱이 어딘가에 콕 박혀 있는 것만 같았다. 애가 자리를 잡은 곳은 어디인지. 만약 밖으로 자라나게 된다면 그것은 언제? 무슨 이유로. 평범하지 못한 것의 돌출과 골몰함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것.

이 쉬운 걸 안나는 왜 하지 못하는 것인지.

조안은 노트북을 켜다. 안나라고 적고 줄을 바꾼다.

안나는 평범함을 사랑한다. 안나는 내가 그럴 수 없음을 원망한다. 그럼에도 안나는 나를 떠나지 못하고 늘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 조안과 안나. 다른 사람은 아무리 관찰해도 알 수 없지만 안나는 편하게 읽힌다. 안나는 투명하다. 해석의 여지가 없이 늘 부정적이다. 그래서 나를 편하게 만든다.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 신경 쓰느라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삼쌍둥이. 어쩌면 애초에 하나의 인격체. 어린 시절에 꿈을 꾸는 적이 있다. 어쩌면 태아 시절의 기억을 꿈이라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 내가 안나를 끌어안고 있다. 어쩌면 끌어안은 게 아니라 뭉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나의 심장이 뛰었다. 탯줄을 통해 공유되는 무언가. 소화한다. 안나를 안아야 했다. 꼭 끌어안아야 생존할 수 있다.

어쩌면 태아 사진에는 하나의 태아만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

점심 먹은 그릇을 치운 직후, 조안은 약을 먹었다.

일단 기분 안정제부터 써 봅시다. 그게 제일 무난해요. 기분이 조금 나아지면 보통 다른 증상들도 같이 줄거든요. 감각이 무뎌지니까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조안이 돌이켜보건대 진료 시간은 삼십 분 남짓 되었다. 그 짧은 시간에 뭘 판단한 거지. 그래서 의사인 건가.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하루에 한 번 식후에 드세요. 조안은 궁금했다. 어째서 식후에 먹어야 하죠. 점심에 먹는 것과 저녁에 먹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만 묻지 않았다. 그게 조안의 루틴이니까. 언제부터인가 생긴 규칙이었다. 궁금한 것도 궁금해하지 말 것.

물 많이 마시랬지. 조안은 컵에 가득 물을 따랐다. 천천히 물을 따르며 조안이 생각했다. 무난하다는 건 뭐지. 내가 늘 그랬으니까 그런 애라고 판단한 것처럼 무난한 결과를 내기 위해 무난한 약을 준 걸까. 무난하다는 건 해석하기 너무 어려운 말이었다. 어찌 되었든 의사는 조안을 몰랐고, 몰랐기에 평균적인 약을 처방했고, 조안은 처방에 의문을 가졌지만 그냥 삼켰다. 소파에 누웠다. 잠깐 멍하니 있다가 일을 시작하면 되었다.

조안은 규칙 안에서 아늑했다. 이 문장에 적절한 말과 저 문자의 알맞음 사이에서 유기성을 찾는 데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조안은 한 번 집중하면 몇 시간이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일할 수 있는데, 음, 뭐지, 죽은 느낌이 난다. 죽은 느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언젠가부터 죽은 느낌이 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잔뜩 흐르던 말들이 잠잠해진다. 그건 내가 사라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지. 감정 따위가 줄어든다는 말이 아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던 태아로 돌아간다. 어떠한 주관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씨앗이 된다. 하지만 그럴 순 없었다. 나한테 언니밖에 없듯 언니도 나밖에 없고 내가 없으면 우는 언니를 안아 줄 사람이 없으며 그럼 언니는 계속 울 것이다. 조안은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았다. 소멸하는 기분이었다.

这是当时在韩国拍摄的视频。 请多多关照。

그때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잘 부탁해요!

조안은 편집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 보았다. 영상 속에서 조안은 목소리로만 존재했다. 낮은 기분을 느꼈다. 분명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처음 보는 영상 같았다.

그런 것보단 평범한 한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 해 주세요. 자연스럽게요.

조안이 통역하는 장면은 편집돼 있었다. 조안은 자신이 뭐라고 통역했었는지를 떠올렸다. 기억나지 않았다. 보통으로 해 주세요? 일반적이게 해 주세요? 모르겠다. 그때의 감상이 들어간 것만, 어째서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대신 그 사람의 표정들만 자꾸 떠올랐다.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영상 속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만 같았다. 대체 뭐가 그렇게 하오하오 한 건데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왜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조안은 속에서 무언가 들끓는 것을 느꼈다. 조안은 직역하며 자막을 달다가, 순간 욕하는 마음에 이미 번역한 모든 문장을 지웠다. 통역을 하던 순간처럼 조금씩 말을 잘랐다. 자기검열을 했다. 아주 좋다는 나쁘지 않다로, 정말 예쁘네요는 뭐…… 그러네요로. 문자 그대로 옮기면 안 되지. 그게 전부 아니잖아. 누군가의 삶이 어그러지니까. 조안은 중얼거렸다.

*

조안의 눈 앞에 안나가 있었다. 조안은 요즘 매일 한 시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기다렸다. 얼마 안 가 안나가 손톱을 깎을 테니까. 안나는 매번 비슷한 시각에 일어나 매일 같은 곳에 있는 손톱깎이를 꺼냈다.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은 안나는 언제나처럼 손톱 밑을 들쭉냈다. 조안은 안나를 바라보며 묘한 희열을 느꼈다. 물론 자신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고, 자신조차도 자꾸만 규칙을 깨고 새벽마다 안나를 보러 오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조안은 평생 노력했다. 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 평범함을 익혔다. 배웠다. 정의에 대해 수백 번이고 되뇌었다. 그래도 조안은 조안이었고, 조안은 변하지 않았기에 할 수 있는 건 숨거나 아예 말하지 않는 것밖엔 없었다. 틀어막는 건 쉬우니까. 안나가 밉나. 조안은 이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안나는 하나뿐인 언니고 조안의 유일한 형제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미워한 적 없다. 안나가 싫다면 싫은 것이다. 자신에게 못되게 말하는 것은 괜찮다. 안나가 화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안은 발소리를 죽이고 안나의 곁으로 다가갔다. 안나의 머리를 한쪽으로 몰아 목이 드러나게 했다.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뒷목 부근에 붉은 자국이 있었다. 조안은 엄지 손톱으로 흉터의 중앙을 꼭 눌렀다. 세로선이 붉게 그어졌다.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눌렀다. 여러 방향으로 돌리면서 흉터를 짓눌렀다. 안나의 목에 눈송이 같은 문양이 생겼다. 조안은 그 자국을 손톱으로 살살 긁었다. 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자극이 들어가면 빨갛게 부어올랐다.

어떻게 하면 언니가 날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분간이 되면 되는 걸까. 그렇다면 방법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언니가 나로 변하는 걸 보고 싶어.

목의 흉터를 드러낸 안나가 풀린 눈으로 손톱을 깎는다. 모든 동물은 잠을 잘 때 제일 약하다. 은밀하게 공격해도 알아채지 못한다. 안나는 지금 가장 약하다. 안나가 가장 약한 상태로 손톱을 깎는다. 그게 가장 약한 안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조안은 그것을 본다. 지켜본다. 푹푹히. 조안은 조심히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다.

안나는 중얼거린다.

조안.

조안은 움찔거린다. 분명 자신의 이름을 읊조린 것을 들었다. 자고 있는 채로 그렇게 말했다. 조안은 그것을 들었다.

안나가 일을 마친다. 손톱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치부 덩어리. 안나는 손톱깎이를 서랍에 넣고 자리로 돌아간다. 조안은 카메라를 끄고 조심히 안나의 방 안으로 들어간다. 더러운 바닥을 치운다. 안나가 더럽힌 바닥을 치운다. 언니가 치우지 못하는 언니를 치운다. 내가 언니의 동생이니까.

안나.

조안이 중얼거린다.

발바닥에서 손톱이 자랄 거야. 정말이야.

조안이 말한다.

너는 믿어 줘야지.

조안이 바닥을 쓸며 말한다.

나는 늘 언니를 안아 주고 싶어 하잖아.

조안이 손톱을 모으며 말한다.

언니는 그래야지. 나를 소화해야지.

내가 되어야지.

조안은 안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잠을 잔다. 폭 잔다. 베개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

*

我很失望。以后我不会把工作交给你了。为什么瞎翻译呢？是因为我不懂韩语才这样开玩笑吗？这事你打算怎么办？

실망이 커요. 앞으로 일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왜 멋대로 번역한 거죠? 내가 한국말을 몰라서 놀린 건가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조안은 그 사람의 메일을 읽고 또 읽었다. 조안은 한국말로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메일을 보냈다. 언짢았다.

그 사람의 말은 가벼운 동시에 너무 무거웠다. 끊임없이 끈적한 생각이 머릿속에 달라붙었다. 그를 떠올렸다. 그와 그 사람의 번역어는 어떻게 다른가. 그의 웃음은 어떤 점에서 이상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된 건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사람을 해석하는 일은 멀고도 벽차다. 중국어를 아주 잊어 버린 기분이 들었다.

인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 그렇다는 건 인사가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고, 인사조

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는 어디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이며, 무엇이 가장 부족한 걸까.
조안은 고등학생 때 공부하던 기초 중국어 회화 교재를 펼쳤다.

你好。我叫金大韩, 你呢?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我要去北京火车站, 怎么走?

저는 베이징 역에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실은 베이징 역에 가지 않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강요된 상황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
다면? 혹은 베이징 역을 원한 게 아닌 거기서 기다리는 누군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문자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베이징 역은 어째서 베이징 역이며 베이징 역이 아닌 다른 역은 아주 필요 없는 것인지. 당
사자인 베이징 역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이
징 역을 아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건 아닌지. 그렇다면 설명 없이 문장만 제시되었
을 때는 어떻게 번역해야 맞는 건지. 애초에 정답은 있는지. 규칙은 있는지.

조안은 그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

안나 씨, 그거 들었어? 죽었대, 그 여자.

안나는 서류를 정리하던 마우스를 놓고 동료들 바라보았다.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조사 받고 한참을 안 오더니 죽었대. 손자는 할머니가 죽었는데
도 그냥 자는 줄 알고 씩씩하게 계속 유치원에 갔대. 애가 씻지도 않고 피죤하니까 선생
님이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했다잖아. 어휴, 끔찍해.

누구요?

이름은 모르지. 그 여자 몰라? 안나 씨도 싫어하잖아.

동료는 허리를 굽혀 안나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나름 목소리를 낮춘다고 노력하긴 했
지만, 오히려 바람 소리가 켑켑거려 더 시끄러웠다. 안나가 사는 작은 동네는 소문이 금방
돌았다. 그중 절반은 맞고, 절반은 헛소리였다. 물론 모두 헛소리일 때도 있고, 아닌 것 같
은 데 모두 사실일 때도 있었다. 안나는 그 얘기 들었어?로 시작하는 모든 말들이 너무 지겨웠
다. 머리가 아팠다.

이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안나의 앞으로 모인다. 죽음이 일상적인 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하는 것이 익숙해진 게 언제인지 까마득했다. 어차피 얼굴도 빛도 모르는 상대고, 겨
우 아는 것이라곤 며칠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뿐이기에 멀게 느껴졌다. 60대 여성의 사망은
안나에게 있어 너무 일상적이다.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사망 처리한 서류 중 하나였을까. 아니

면 나 말고 다른 동료가 처리했던가.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안나는 버릇처럼 손톱을 입에 물었다. 잘근잘근 씹으려는데 손톱이 너무 짧았다. 이상하지. 난 근래에 손톱을 자른 적이 없는데. 그렇다기엔 너무 정갈한 열 손가락. 머리가 아프다. 안나는 누구를 미워해야 하는지 헛갈리기 시작했다. 와중에 손톱이 너무 매끈했다. 내가 자르고 잊은 건 아닐까. 그게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렇게 여기는 게 가장 설득력 있어서 안나는 그대로 믿었다.

자른 적이 없는데 짧아진 손톱이라든지. 밍다 말한 적도 없는데 죽어 버린 원흉이라든지.

결론은 내가 자르고 잊어 버린 죄. 모든 게 다 나에게서 시작한 죄. 그렇다면 엄마가 낳은 것도, 조안과 나를 동시에 낳은 것도 나의 죄일까. 내가 선택할 수 없던 것도 내가 뒤집어써야 하는 죄악. 어쩔 수 없이.

안나는 그 누구도 미워할 수 없어서 이미 정갈한 손톱을 잘근잘근 씹었다.

피가 났다.

안나가 집에 왔다. 무슨 정신으로 도착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습관에 몸을 맡기며 걸어서 집에 도착했다. 안나는 외투를 벗기도 전에 소파에 드러누웠다. 조안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게 보였다. 불행하게도 자신과 똑같이 생긴 정수리. 뒷통수. 조안이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 있었다.

밥 먹어.

그래.

안나가 국을 떴다. 조안은 젓가락으로 밥부터 떠서 입에 넣었다.

있잖아.

응.

이상해.

뭐가?

모르겠는데, 이상해. 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뭘 기억 못 하는지도 모르겠어.

조안은 천천히 밥알을 씹었다. 씹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는데.

네가 뭘 아는데.

괜찮아. 언니 곁에는 내가 있으니까.

안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대화를 시도한 내 잘못이지, 안나는 생각했다.

체면. 언니는 체면을 신경 쓰지. 조안이 생각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깜짝 카메라. 내가 어디부터 모르는지만 알아도 좋을 텐데. 너무 불안해.

네 말은 늘 이해할 수가 없어. 병원이나 가.

알잖아, 다니고 있어. 약도 꼬박꼬박 먹어.

조안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조안은 늘 그랬다. 하나부터 열까지 논리에 맞지 않는 말만 하면서 괜히 신경 쓰이게 만드는 데에 선수였다. 괜히 곱씹어 보고 스트레스받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조안은 안나의 동생이었고,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같은 얼굴을 나눠야 했다. 안나는 발바닥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밟히는 느낌이 들었다. 치위도 치위도 어디선가 자꾸만 튀어나왔다. 아무리 잘라도 소용이 없다. 아주 퇴치해 버릴 수도, 뽑아낼 수도 없다. 그렇다는 건 찢찢하고 이질감이 드는 것을 평생 끼고 살아야 한다는 걸까?

소름이 돋았다.

안나는 간지러움을 느꼈다. 팔을 뻗뻗 긁었다. 피가 났다. 해소되지는 않았다.

무라시. 무라시. 무라시.

무라시.

손톱이 자랄 거야. 곧이야.

조안이 말했다. (200*149.5)